

“한국 문학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해 미래 제시할 것”

초대 국립한국문학관장 임명된 보성출신 문정희 시인

1969년 등단...5·18 충격에 자녀들과 미국서 8년 유학 한국 여성의 고뇌 등 신간에 담아...21일 문화전당 강연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이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한국문학관장으로 임명됐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화유산 계승과 문학 활동 및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 시인은 “한국문학을 소중하게 수집하고 분류해서 체계있게 전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미래를 제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문 시인은 올해로 53년을 맞이했다. 문 시인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시를 썼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학을 졸업한 문 시인은 80년 5·18광주민주화운

동의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져 아이들과 함께 1982년 미국 뉴욕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 시간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 자유에 대한 가치관을 인식하게 됐고 약 8년간 뉴욕에 갖고 있는 문화의 거대한 예술적 현상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뉴욕에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문 시인의 시는 모습을 달리하게 됐다.

그의 시에는 한국의 딸과 여성으로 살아가며 느낀 고뇌가 담겨있다.

특히 문 시인의 시는 페미니즘적 기조가 드러내져 있다. 이번 신간 ‘서원에 오른여자’와 앞서 나온 시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 ‘물을 만드는 여자’, ‘꽃의 선언’ 등 다수의 시에서 마주할 수 있다.



언어로 인류의 자궁인 여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문 시인은 1980년대 여성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서까지 두루 섭렵했다.

신간 가장 앞장에는 “10대 때부터 어린 시인, 아직도 어린 시인”이라고 적혀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독서’다. 나에겐 아직도 어린이같은 호기심과 순수함이 존재한다. 앞으로 미래가 충만하게 열려있는 존재로서 어린 시

인의 마음으로 아직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며 이를 위해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

신간 ‘망각을 위하여’에는 시를 고치고 주무르는 문 시인의 모습이 담겨있다. 문 시인은 창작에 대해 “누군가는 창작을 뼈를 깎는 것과 비례한다고 말한다. 창작은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어두운 책상 의자에 앉아 고요히 시를 적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시는 늘 즐거움이다. 내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시를 살았다”, 문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 한문장으로 정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비로소 시를 살아낸 하나의 인간으로, 앞으로 오래도록 시와 함께 하겠다고, 눈 감는 날까지 시인으로서의 삶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시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2022아시아문화페스티벌’에 21일 특별초청 작가로 강연을 한다. 문 시인은 특강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한국문학 그리고 나의 시’를 시작으로 시 낭송과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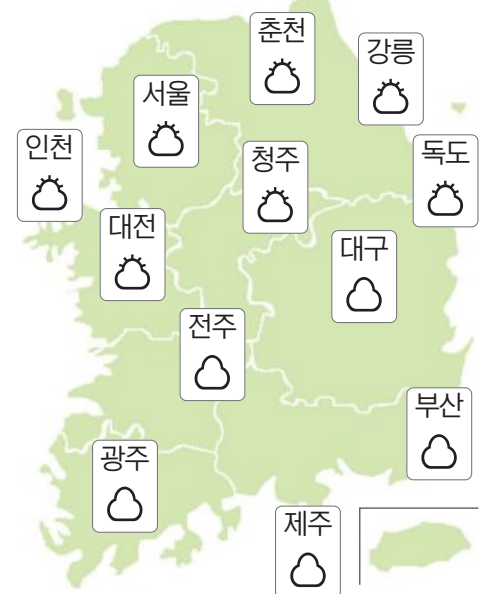
해돋이	06:43	달뜨기	02:07
해질	17:51	달지기	15:55

안개 주의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미만의 안개끼는 곳있겠다.

광주	흐림	9/21	보성	흐림	5/20
목포	흐림	11/20	순천	흐림	8/22
여수	흐림	13/20	영광	흐림	7/20
나주	흐림	6/21	진도	흐림	9/21
완도	흐림	11/21	전주	흐림	8/20
구례	흐림	6/20	군산	흐림	7/19
강진	흐림	7/22	남원	흐림	5/20
해남	흐림	7/22	혁신도	흐림	14/19
장성	흐림	6/20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5	0.5~1.5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00	11:09
		16:52	23:46
여수		00:49	06:45
		12:32	18:56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낮음	보통

◇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13/22	12/18	7/16
25(화)	26(수)	27(목)
6/18	7/19	9/21

광주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대표 이·취임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광주공동모금회 2층 나눔문화관에서 광주아너소사이어티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광주사랑의열매 제공>

북광주농협, 광주시민의 숲 산책로 ‘플로깅’ 봉사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은 최근 광주시 북구 광주시민의 숲 산책로 일대에서 북광주농협 여성대학 동창생 및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봉사를 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순천공고 동문장학재단, 모교에 장학금 전달

순천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재단은 최근 모교에서 열린 총동문체육대회에서 모교 재학생 136명에게 6800만 원의 장학금과 이상대 동문장학회 이사장의 1000만 원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순천공고 총동문회의 주최로 열린 총동문체육대회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상대 장학회 이사장, 김홍렬 교장, 노관규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강형구 시의원, 김미연 시의원, 유영갑 시의원, 우상원 시의원과 순천공업고등학교 동문, 선발된 장학생 136명이 참석했다.

순천공고동문장학회는 2017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3명의 장학생이 선발돼 총 2억 2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열린 제43차 총동문체육대회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총동문화 발전과 장학금 기부문화조성에 앞장 선 동문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고 체육대회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성희 전남중기일자리경제진흥원장 취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6대 원장이 이성희(58·사진)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이 21일 취임한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원장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신임 이성희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신으로 실무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이 원장은 “전남도 출연기관으로서 대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선8기 전남도의 비전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다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1964년 전북 장수 출생으로, 199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해 글로벌성장본부장,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단의 신규 사업 추진 및 조직 확대를 통해 기관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0월 20일까지 2년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정재용(전 세계로병원 행정부원장)·송은경씨 아들 우선군, 기우백·양순씨 딸 경아양=22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라페스타 웨딩홀 4층 디아랑홀
- ▲서인태·김순희씨 아들 정민군, 홍호표(광주대 교수, 전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김애숙씨 딸 선영양=23일(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아펠가모 잠실 2층
- ▲차영수(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박인숙씨 딸 희원양=29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5층 그레이스홀
- ▲김정관·장영라(광주중앙도서관)씨 아들 규채군, 김정애씨 딸 문옥양=11월 5일 오전 11시 50분 광주 라페스타 웨딩홀 2층 엘루체홀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

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에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권 응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

0030.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